



‘클라우드 컴퓨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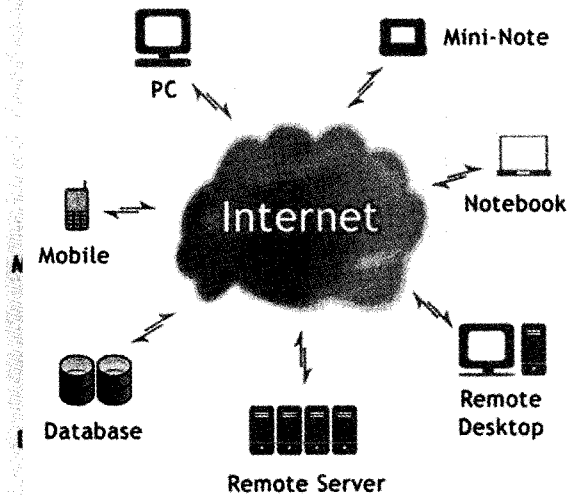
김현회 원칸네트웍스 사업총괄본부장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시대라 그 흐름을 따라 잡기가 쉽지 않다. 지난번에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에 관하여 설명한 바 있는데, 2011년을 살면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메가트렌드가 하나 더 있다.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력이 있느냐라고 일갈하면 더 이상 할 말은 없다. 하지만 단언컨데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괴물이 머지 않아 우리 회사사들의 본사와 현장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당장 적용은 어렵더라도 그 개념을 알고 조금씩 준비해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11년 6월~ 2011년 7월 자재 동향)

| | |
|--------------|--|
| 자재 전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STS관 BASE 인하 예정 - 강관 2011년 5월 신탁가 적용 - 7월 동관 LME시세 인상 예정 - EZ-JOINT 신탁가(10%~20% 인상) 출시, 적용일 미확정 - 계절적인 비수기로 자재 단가 보합세 |
| 강관 및 관련 제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10% 인상된 5월 신탁가 적용 - 공급사는 2011년 5월 협가 및 네고율을 적용하는 추세지만, 건설경기 불황 등에 따른 수요 부진이 네고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당분간 동향 파악에 신경을 써야 함 |
| 동관 및 관련 제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경제의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긴축 모드와 유럽 일부 국가들의 재정 건정성 악화 등이 부각되면서 구리 국제 가격은 하락 진정세를 보이고 있음 - 7월 LME 시세는 대략 90~150원 인상 예정 - 동 용접봉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 STS관 및 관련 제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월 STS관 BASE는 대략 50~100원 인하 예정 - STS관은 5월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현재 니켈 원자재 시세는 22,000불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음 - STS 나사 및 용접 부속은 변동 없음 |
| 구매 전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경기 위축과 상반기 인상 반영된 자재 대부분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주요 관류는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실 투입 물량 위주의 구매 패턴이 바람직함 -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재 공급업체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협상시 단가를 대폭 낮출 수 있음 |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도]



(원컨네트웍스-2011년 6월, 인터넷 자료 인용)

일을 하며 가장 황당한 경우 중의 하나는 PC가 갑자기 먹통이 되고 그동안 저장해 놓은 데이터가 모두 날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올해 들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개념은 최근에 갑자기 튀어 나온 것이 아니다. 1960 년대에 미국의 컴퓨터 학자인 존 맥카시(John McCarthy)가 이미 주창한 개념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그동안 내 컴퓨터에 설치했던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캐드 등의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라고 말하는 서버에 설치해 놓고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빌려 쓰고 저장도 그곳에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 PC는 강통에 불과하여 인터넷에 연결된 서버의 내용만을 보여 주게 되는 것이다.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 개념을 도입하면 기업 또는 개인은 컴퓨터 시스템을 유지, 보수, 관리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비용과 서버의 구매, 설치,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구매 등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 인력을 줄일 수 있고, 에너지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수 백만원 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지 않고 필요할 때만 잠깐 빌려 쓰고 몇 천원에서 몇 만원만 주면 되기 때문이다. 또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PC에 자료를 보관하다 잃는 경우는 아예 생각할 필요도 없

고 저장 공간도 거의 무제한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사든 현장이든 함바집에서든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작업한 문서들을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다. 물론 중앙 서버가 해킹 당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서버 장애가 발생하면 자료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없지 않다. 그러나 개인 PC에 저장했다가 바이러스, 하드 에러 등으로 데이터가 손실 되는 경우에 비하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서버가 해킹당하여 데이터가 손실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경비 절감액도 수백만에서 억대까지 가능하다.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우리 회원사들도 저비용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할 날이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김현회(金炫會) 총괄본부장

- 現원컨네트웍스(구 설비넷) 사업총괄본부장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졸(91년)
- 삼성그룹 공채 입사(91년, 삼성 화재 발령)
- 홍보실 근무(사보, 사장단 연설문 작성, 사내방송PD, 언론·인터넷 담당 등)

- 삼성그룹디자인연구원 멀티미디어학과 및 UCLA Extension(뉴미디어, 스토리텔링 등) 과정 수료
- 시장개발 및 영업기획 업무 담당(PDA영업, 리플렛 기획 등)
- 인터넷사업팀 근무(삼성화재 전국애니카서비스망 구축, 전사 인터넷사업 기획 운영 등)